

한전 3분기 영업이익 1조9966억원…흑자 전환

2021년부터 9개 분기 영업손실…누적 영업손실 6조5천억

영업비용 1조5천억 감소…“흑자 지속 불투명, 자구노력 이행”

한국전력이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누적 영업손실은 6조45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폭으로 개선됐다. 다만 국제유가·환율 불확실성 지속에 흑자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한전은 앞서 발표한 특단의 자구노력을 이행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3분기 연결 기준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조4700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333억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매출액은 65조686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9%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이 72조1399억원으로 2.0% 소폭 줄어들며 영업손실 규모는 6조4534억원으로 전년보다 70.4% 개선됐다.

지난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오던 한전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당기순손실은 5조98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1% 개선됐다.

한전에 따르면 영업비용은 연료비 감소 등으로 1조4594억원 감소한 데 기인했다. 구체적으로 전기판매수익은 판매량이 0.3% 감소했지만 13조8281억원 증가했다.

요금 인상에 따라 판매단가가

29.8% 상승한 탓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사회사 연료비는 2조6599억원 감소했지만, 민간발전사 전력 구입비는 2674억원 늘었다. 발전량과 구입량의 전체 규모가 감소했지만 민간 신규 석탄 발전기 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관계자는 “2022년 4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5차례의 요금조정과 연료가격 안정화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국제유가와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흑자 지속이 불투명하다”며 “한전은 국민께 약속드린 자구노력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경영을 정상

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알짜자산’인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매각과 2000명 규모의 희망퇴직 등을 포함한 자구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전은 특히 2001년 발전사를 분사한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또한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와 사회사 한전KDN의 지분 20%, 필리핀 칼라타간 지분 전량을 매각해 총 1조원을 창출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한전은 지난 9일부터 주박용·소상공인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중에서도 대용량 요금만 평균 kWh(킬로와트시) 당 10.6원 인상하는 내용의 요금조정안을 발표했다.

/뉴스이

현대차 ‘상용차 부품할인 프로모션’

주요 소모성·기능성 부품 대상 18%~50% 할인



현대자동차가 동절기를 앞두고 현대모비스, 중대형 상용 블루핸즈와 함께 중대형 트럭 및 버스 전 차종을 대상으로 ‘상용차 부품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주요 소모성·기능성 부품들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현대 상용차 고객들의 차량 총 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을 줄이고 해당 부품의 주기적 점검·교환을 통한 안전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일부터 12월 8일)지 4주 동안 전국 99개 중대형 상용 블루핸즈에서

진행된다.

현대차는 해당 기간동안 ▲소모 부품인 연료필터, 요소수필터,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기능성 부품인 EGR클러, EGR밸브, 히터 어셈블리, 히터코어 등 총 8종의 부품에 대해 18%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제공한다.(※부품별 할인율 상이)

이번 ‘상용차 부품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www.hyundai.com) 현대 SHOP(shophyundai.com) 및 ▲마이현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GIST, 과학기술대전서 우수성과물 선포

360도 전방위 촬영 초소형 수륙양용 카메라 등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참가해 우수 연구 성과물을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GIST는 ‘360도 전방위 촬영 가능한 초소형 수륙양용 카메라’와 ‘물체인식 지능증강 프레임 워크’ 연구 성과물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송영민 교수 연구실의 ‘360도 전방위 촬영 가능한 초소형 수륙양용 카메라’는 농계의 돌출된 겉눈 구조의 눈을 모방해 사방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카메라는 360도 전방위 촬영

과 물 안팎의 환경에서 동시에 촬영이 가능하다. 또 기존 광각 카메라의 왜곡을 완화하며 전방향및 전후 영상 처리가 가능해 자율주행의 물체 인식 및 VR·AR 등에 활용이 기대된다.

이규빈 교수 연구실의 ‘물체인식 지능증강 프레임 워크’는 학습한 적 없는 모르는 데이터를 구별해 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는 사람과 달리 정답을 찾도록 학습된 인공지능은 답을 몰라도 유사한 값을 정답으로 인식한다.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새로운 물체를 인공지능이 자각하고 기존의 인공지능과 연계 지능을 증강시킬 수 있다.

임기철 총장은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은 GIST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광주·전남 뷰티산업 유망시장 발굴 힘써야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뷰티케어산업 보고서

광주·전남 뷰티케어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전시회 지원 늘리고다양한 유망 시장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23 광주전남 뷰티케어 산업 수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광주전남 지역의 뷰티케어 산업 수출현황과 지역내 기업 대상 조사를 통한 2024년 수출 환경 전망, 광주전남 뷰티케어 수출 활성화 방안, 품목별 주요 수출 국가 등 참고자료를 수록했다.

13일 보고서에 따르면 뷰티케어 산업은 글로벌 성장세와 한류콘텐츠, K-뷰티 열풍 등에 힘입은 꾸준한 수출 성장이 이루어지는 산업이지만, 광주전남은 다른 지자체 대비 규모 및 수출 참여 면에서 활성화가 미흡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 광주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수 271개로 전국 13위, 수출 규모는 300만달러로 17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수 227개로 15위, 수출 규모는 800만달러로 14위다.

광주는 올 9월 기준 수출 287만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세인 반

면, 전남은 826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의 경우 일본(46.1%), 중국(19.7%)이 주력 시장이며 기초화장품,마스크팩이 주력 상품이다.

전남은 미국(41.3%), 러시아(16.6%), 중국(12.3%)이 주력 시장이며 기초화장품, 목욕·세안용품 주력 상품이다.

뷰티케어 업체 대상 조사 및 인터뷰 결과 내년도 수출 환경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원재료·금리인상·시장위축이 공통적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뷰티케어 업체가 희망하는 수출 지원은 1순위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 2순위 수출바우처 등 종합지원, 3순위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광주·전남 뷰티케어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호남권내 면세점 유치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화장품에 대한 제조업체명의 명기 의무 규제 폐지 ▲광주전남 권역내 화장품 OEM제조시설 활성화등을 제시했다.

/권형안 기자

전남도, 무역의 날 맞아

수출기업·유공자 공모

전남도는 제60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 확대에 공헌한 수출기업과 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수출상과 유공자 포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 수출상은 수출 실적과 수출증가율, 직수출 비중, 신시장 개척 등을 심사해 수출기업 7점, 유공자 9점 등 총 18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출 실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수출기업 포상 신청 자격은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수출 유공자 신청 대상은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공무원이다.

수출기업이나 유공자는 신청서, 이력서, 공적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수출 유관기관 수출 업무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럼피스킨 양성 판정 소만

살처분…2주간 이동 제한

정부가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를 살처분하지 않고 양성 판정을 받은 소만 선별해 살처분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국 모든 소에 백신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13일부터 럼피스킨 양성 판정을 받은 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럼피스킨 확산세가 다소 수그러든 상황이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첫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확인된 뒤 첫 주에 47건이 발생했다. 이후 2주차에는 28건, 3주차에는 12건으로 줄었다. 4주차에 접어든 지난 9일 이후에는 4건이 발생했고, 11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수본은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 심의회를 거쳐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했음뿐 아니라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온 하강으로 모기와 파리 등 매개 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발생 추이와 전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시작…오는 30일까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김장배추 소비 점점 감소…전남도, 대체작목 전환 지원

1인당 김치 소비량 2년사이 절반으로 줄어

전남 가을배추 면적 전국의 22% 그대로

전남도는 김장용 배추 적정 생산유도와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대체작목 전환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김장문화 변화, 1인당 김치 소비량이 2000년 74.2kg에서 2020년 32.2kg로 감소하는 반면, 전국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매년 1만4000여ha 수준을 유지해 가격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가을배추 면적은 3100ha로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대체작목 전환을 위해 지난 8~9월 신청을 받은 해남과 진도 등 11개 시·군 317ha에 도비 4억원을 포함, 최종 사업비 총 14억원을 확정했다.

시·군별로는 주산지인 해남이 가장 많은 264ha, 영암 17ha, 진도 15ha 순이다. 유형별로는 휴경이 103ha로 가장 많고, 농림과 재배계약이 체결된 보리 47ha, 밀 35ha, 유채 등 기타작물이 132ha다.

지원 대상은 2021~2022년 배추를

재배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원금은 11월 중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휴경 또는 배추가 아닌 지원대상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ha당 450만원을 지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 53억원을 투입해 배추 359ha를 산지 폐기한 사례를 고려해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작목전환을 지원하게 됐다”며 “작목 전환뿐 아니라 앞으로 전남산 절임배추와 김장김치 구매협약 체결, 김장대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최대 5000만원’ 중기 혁신바우처…“중대재해예방 신설”

내년 지원사업 1차 공고…컨설팅·기술·마케팅 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지원 대상을 미리 선정해 제조중소기업이 연초부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제조업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 지역자율형으로 구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내년 지원예산은 총 558억원이다. 1차 공고를 통해 일반바우처, 탄소중

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3개 유형에 약 4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바우처 1개 유형에 약 15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올해와 달라진 점도 있다.

중기부는 보조율을 낮춰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한다. 지금은 선정 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90% 범위에서 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내년에는 45~85%로 조정된다. 90%에 달하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보조율도 일반 바우처처럼 45~85%

로 변동된다.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기준만을 적용하고 제품 매출액 비율 50% 기준은 폐지된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와 지역자율형 바우처는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또 현행 50억원 규모의 지역자율형 바우처는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도 간소화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